

“하나의 벼, 모두의 벼”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3/2024. 12/1

vol.300



미얀마에 어린이성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 해

구상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율조(律調)일 따름이다

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은
이성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
내 심호흡한 가슴엔 사랑이
뜨거운 새 피로 용솨음친다



2023년 한벗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벗등지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 10명을 모시고 사는 집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으며 직원 11명이 연중 24시간 근무합니다. 17년째 운영.

한벗주간 보호실

뇌병변과 언어, 발달이 복합된 중증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이용합니다. 효창동 한벗회관 안에 있으며 직원 4명이 근무합니다. 15년째 운영

고양시지축 종합복지관

1,400세대 임대주택 단지의 종합복지관입니다. 2022년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주민 서비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13명. 고양시 지축동

재단 본부 사업

중증장애인 숙박여행 제공	여행 기회가 없는 누워지내는(와상) 장애인과 가족에게 숙박 여행 12회 제공. 장애인 28명, 가족, 봉사자 등 126명	
중고 유아차 빈곤국 기증	중고 유아차 250대 방문 접수. 기증 → 필리핀 150대, 미얀마 100대	
장애인피부미용서비스	한국미용학회 지원으로 한벗회관에서 월 1회 서비스. 장애인 38명 이용, 피부미용분과 자원봉사 교수 30명	
휠체어 무료대여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퇴원환자에게 무료 대여. 스웨덴, 멕시코 등 외국인 관광객 17명, 내국인 4명 총 21명	
한벗 45주년 기념식	한벗 45년 역사기록간행, 장기·고액기부회원 540명에게 감사패 증정. 기념식(서울 YWCA 강당, 105명 참석)	
게스트룸 운영	한벗회관 3층에 원룸형의 손님방 운영 외국인 23명, 내국인 3명 이용. 하루 2만원	
빈곤장애인 지원	빈곤 중증장애인 가구. 목욕 침대와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 기증, 나들이 제공.	
국내 외국인장애인 지원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연변 장애인 5명에게 전동 및 수동휠체어 기증, 숙박여행 제공	
미얀마 지원	휠체어 기증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 10대, 의류 50점 등
	보육원 지원	양곤 빈민지역 보육원 2곳에 놀이기구(그네 및 트램블링 2대씩), 하모니카 35개, 책걸상 10조 기증, 미술대회 개최
	어린이합창단 육성	양곤 빈민지역 보육원생 합창단(30명) 육성, 지휘봉사자 파견
	어린이월간잡지 기증	월 1,000권, 전국 138개 학교, 보육원, 마을도서관 정기기증

2023년 새로 시작한 사업



생애 최초의 가족여행

약 냄새 찌든 방에서 10년, 20년을 누워지내는 희귀 난치병 장애인에게 여행은 생애의 감격이다. 지금까지 이분들의 여행을 지원하는 단체가 없었는데, 지난해 한뼘이 시작했다. 장애인 버스를 개조해 침대 탑재 좌석을 만들고 특수 장비를 마련했다.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바다가 보고 싶다' 검색.

126명에게 제공

중증장애인 숙박여행은 어렵다. 관광코스과 숙박업소의 장애인화장실, 음식점의 편의시설을 찾아야 하고 장애인 1명에 3명의 보조인이 붙어야 한다. 외상 장애인 12명과 가족, 보조인 포함 126명이 서해안과 동해안, 지리산 노고단으로 다녀왔다(서울시 지원사업).

미안마 최초의 어린이성가대 육성

빈민지역 어린이 선발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로 미루고 있던 미안마 어린이성가대 육성이 작년 8월부터 지휘봉사자가 현지로 오감으로써 시작되었다. 현재 양곤 빈민지역의 <달라> 사찰학교 어린이 중에서 30명을 선발하여 두 차례 방문지도 했습니다.



지휘봉사 민성숙 선생

지휘를 자원한 민성숙 선생은 작곡 전공 음악교사 출신으로 2015년부터 수차례 미안마를 오가며 악기를 기증하셨고, 내년 봄부터는 현지 사원학교에 머물며 지도를 계속 하십니다. 어린이들의 노래가 불행에 빠진 미안마에 희망의 꽃이 되기를!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헌금을 기부해주신 만리현감리교회와 서중석 창립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미얀마에 휠체어 500대 기증 교보생명 지원



고급형 수동휠체어

미얀마에 고급 수동휠체어 500대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단체가 미얀마에 기증한 휠체어 중 가장 많은 물량으로 <교보생명>의 기부금 2억원으로 추진됩니다. 올해는 휠체어가 크게 부족한 미얀마 국영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400대를 병원에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국영병원의 휠체어

아시아 최빈국 미얀마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국영병원의 휠체어 구비율은 8%에 불과해 입원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보유한 휠체어는 30년이 된 낡고 녹슨 제품이라 위생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방문해보니 양곤의 한 500 침상 병원이 보유한 휠체어는 40대에 불과했습니다.

(미얀마 국영병원에 비치된 휠체어)▼▶



제일 가난한 나라에 제일 좋은 제품을

휠체어가 제일 필요한 곳은 병원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보조기기입니다. 올해 미얀마에 기증할 휠체어는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벨기에의 Vermeiren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구하기 힘든 비싼 제품입니다.

빈곤국 휠체어 기증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휠체어를 기증한 기관은 한벗이 유일합니다. 한벗은 2013년부터 연예인 황기순 선생과 아이러브 안과병원의 기부금 등으로 미얀마에만 504대를 기증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 건강검진 받아



건강검진의 중요성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몸이 약한 우리 주간보호실 식구들의 건강 유지는 더없이 중요하다.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온 식구가 매달려야 하고 이에 따라 초래되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해서 평소의 건강관리와 세심한 정기 검진이 필요한데, 문제는 장애인 경험이 없는 일반병원의 검진을 안심할 수 있느냐, 이다.

국립재활원에서

검색 끝에 장애인 경험이 많고 신속히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여 보호자들이 새벽부터 직접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시간에 맞추어 도착했다. 다음에는 우리 식구들이 검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호자가 곁에서 다독여 여느 때보다 수월하게 치렀다. 우리 식구 모두 건강 이상 없어요!

최신 장애인이동 승합차 들여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슬로프 탑승방식의 최신 승합차(스타리아)를 지난달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승강장치가 없던 이전 승합차에 비해 타고 내리기 편하고 승차감도 얼마나 좋은지요!



봉사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 허현정, 박시연, 신이주, 김지인, 김예진

선물 주신 분

- 전소민 이용자 보호자 : 떡 1박스
- 오은주 이용자 보호자 : 수제커피 1통
- 효창동 주민센터 : 김치 15박스
- 푸드뱅크: 빵 60개

발달장애아동들의 노래

지난 12월 중순, 발달장애 또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위와 풀, 색연필로 크리스마스트리가 그려진 소고를 만들어 퐁퐁퐁~ 두드리며 '흑부리 영감님~' 노래도 불렀지요. 어머니들의 의견을 모아 꾸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꾸며요.



'신사의 품격'



3월부터 이어온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들의 모임(신사의 품격)이 지난 12월 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14번의 만남을 통해 어르신 8분은 서로 사귀며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와 성역할 등에 대해 유익하고 도타운 우애를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신사의 품격' 이 더 높아지기를-

한빛등지의 엄마 채순옥 선생



등지 엄마

앞 못 보는 만용(23세, 2022년 2월 입소) 군이 신경기 팀장에게 채순옥 선생님을 불러 달란다. 채 선생님이 주방 일을 뒤로 미루고 조용히 만용 군의 방을 찾았다. “무슨 일 있어?”, “그냥 선생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방문을 닫은 채 한동안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눈다. 만용 군이 왠지 울적했다 보다. 채순옥 선생은 10년째, 제일 오래 근무하신 조리사 선생님이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순정하고 다감하시어 등지 식구들이 마음을 녹이고 어깨를 기대는 엄마 품이다. 남자들

만 사는 등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엄마. 채 선생님, 언제까지나 우리 등지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검찰청이 좋아요

검찰청은 죄지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곳이지만 우리에게겐 반갑고 고마운 이웃이다. 벌써 10년째 매년 기부금을 주시는가 하면 때론 직원들이 와서 점심까지 만들어주신다. 지난 연말에도 서부지검에서 오시어 점심을 만들어주시고 기부금을 놓고 가셨어요.

선물하신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10월 17일~12월 16일

[개인] 김민혁 어머니(이용자) 무, 김승빈(후원자) 꿀, 김인곤(후원자) 우족, 박상봉(후원자) 커피, 박주용 부모(이용자) 김치, 쌀, 부흥세탁소(후원자) 고구마튀김, 손영숙(실습) 음료, 찹쌀, 송서아(후원자) 쌀, 신혜진(실습) 샤인머스켓, 여일구(후원자) 머릿고기, 빵, 오정훈(실습) 라면, 복사지, 우현하(실습) 간식, 떡갈비, 원장님 여동생(후원자) 꿀, 유대호(실습) 간식, 윤정애(실습) 음료수, 익명(후원자) 계란, 꿀, 우유, 찹쌀, 참치캔, 장은정(실습) 생선, 정숙용(실습) 수육, 진권 동생분(이용자) 식재료, 차효진(후원자) 빵, 최명숙 이사님 기저귀.

[단체] 당가원 볶음밥, 자장면,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서부지법 김치, 쌀, 연남주민센터 김치, 열림교회 과일, 쌀, 한 돈 삼겹살.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



피부미용

여성의 피부는 초감도 온도계이고 습도계. 날씨가 나뉘는 대로, 세월이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여성은 아침이면 제일 먼저 거울 앞에서 피부가 하는 속삭임을 듣고 화장할 내용과 그날 입을 옷을 고른다. 화장은 피부보호가 기본이다. 화장품 가짓수가 많고 여러 기술이 발달한 이유도 사람마다 다른 피부의 민감성 때문이다.

장애인의 피부관리

여성은 자신의 얼굴이 만족스럽게 보듬어지면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나 거울을 볼 수 없는 맹인은 어떻게 하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을 것이다. 또 얼굴은 손이 많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데…….

맑고 보드랍게

장애인 피부미용 봉사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중증장애인에게 피부미용을 서비스하는 분들이 있다. 자원봉사자가 크게 줄어든 세태에 너무나 고맙다. 더구나 바쁘기 짝이 없는 대학교수님들이다. 피부미용은 얼굴에, 마음에 손을 대는 일이다. 매만지고 보듬는 모습도 극진하다. 40분 후,

드디어 아름다운 얼굴이 태어나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맑고 보드랍고 촉촉하게,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네.’ 지난 11월, 봉사팀을 이끌어주신 세 분께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한국미용학회 피부미용분과 위원, 최경임, 신규옥, 권나경 교수님께

최준수 목사 추모 음악회



한벗회 창립회장으로 지난 10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최준수 목사님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미망인인조정복 여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8일 열렸습니다. 최 목사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한 회원 21명이 모여 생애를 돌아보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미화, 민성숙, 나영현, 이민숙, 최진경, 현정선 목사님이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며 그리워했습니다.



한벗공동체마을 큰 그림 발표회



현재의 한벗회관이 효창동 재개발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후 재단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펼칠 복지시설(한벗공동체마을)의 기획안 발표회가 지난 11월 25일 효창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백진양 이사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업기획안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얀마어린이성가대 기금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은 불행한 미얀마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합창단으로 키워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동요 부르기를 제창하려 합니다. 내년 봄부터는 지휘자인 민성숙 선생이 현지 보육원에 상주하며 지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금계좌 : 국민은행 763637-04-004336(한벗재단)

감사드려요.

- 고은주 님이 소식을 접하고 특별기부금 200만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성숙 지휘자님을 통해 가입하신 정기기부회원(23년 12월 현재)
김광기 김세현 김 정 김현욱 김현정 민성숙 백진양 성일경 성희진 안재은 오세현 유용운 이명수 이명주 정나원 천만용

12월, 한뼘에 오신 산타

특별기부금 고맙습니다. 큰 격려 받습니다.

- 북텍사스 여성회에서 22년도에 이어 연말에도 \$500을
- 때마다 큰 선물 보내주시는 국기호 선생님 100만원
- 최준수 목사님의 미망인 조정복 여사님 50만원
- 30년째 기부를 이어주시는 신반포감리교회 50만원
- 최준수 목사 기금으로 기부해주신 분 :
구자명 20만원, 김진현 님 10만원과 조형권 님 3만원씩
- 성원용 교수님 50만원, 한국산업은행 직원 작년 이어 300만원
- 권지명 님(전 직원)이 제주도 다녀오시며 굴 한 상자
- 매월 큰돈을 기부하시는 김경미 님 10만원(날개달기)
- 장애인피부미용을 이끄시는 최경임 교수님 4만원
- 김보경, 김진옥 자매와 김홍규, 박훈 박시후 박시은 님이 각 1만원씩.

반갑고 고마운 새 기부회원

배경재(미국 텍사스 킬린교인), 백운채(백진양 님 친지), 이지영(한벗회원), 최경희(전 소록도 간호사), 최성훈(전 직원)



북텍사스여성회 특별기부(맨 오른쪽 김애자 회원)



새해를 맞았습니다. 회원님과 가정에 복된 일들이 눈처럼 내리소서.

2023년 10월 ~ 11월 입금내역. ()안 개월 수

재단본부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

달라스		킬린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김윤원 \$600(3)	아리 \$50(3)	고향미 \$60(3)	미영로사 \$60(3)	이영란 \$120(3)
장덕환 \$600(3)	이안 \$50(3)	김글라라 \$40(2)	배재경 \$80(2)	이정숙 \$60(3)
스텔라 \$450(3)	루빈 \$50(3)	김은희 \$60(3)	백수산나 \$90(3)	장지수 \$80(3)
곽영애 \$100	노아 \$30(3)	김데레사 \$70(3)	유베로니카 \$60(3)	조용순 \$80(3)
QuickCar \$120	제품 \$30(3)	김헬렌 \$40(2)	이엘리자벳 \$80(3)	최정임 \$170(3)
		김혜중 \$60(3)	전이사벨라 \$160(3)	허양욱 \$80(3)
계 \$2,080		계 \$1,450		
북텍사스 여성회 계 \$500				

이중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호(2) 이화경(1) 임경민(2) 임동상(2)
임윤아(3)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김경석(2)
정봉열(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3)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확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미(1) 최경임(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2)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성진(2) 한혜숙(2) 함혁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희(1)
황연희(2) 황정일(3) CUI XIANGY(2)

▶ 15,000원 김병석(3) 백동현(2) 현영돈(2)
▼ 20,000원
(주)인스월드닷컴(1) 강만희(3)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1) 김용신(2) 김인숙(2)
김중용/전정원(1)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용/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2) 변상순(2)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3)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숙재(1) 이용현(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정순(2) 조윤식(2)
한덕희(1) 현승혜(2)
▼ 30,000원
강재철(4) 금재호(2) 김계영(2) 김홍현(2)
나호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고양2)
박용길(3) 오청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1)
정병배(2) 홍성관(1) 황영배(2)
▶ 35,000원 박중성(2)
▶ 40,000원 서판임(2)
▼ 50,000원
고명지(2) 김은영(2) 김은주(2)
김익규/구자명(2) 김지웅(2) 김현수(2)

○ 크리스마스 선물로 더 기부하신 킬린 회원 엘리자벳, 이사벨라, 장지수, 조용순, 최정임, 허양욱
○ 새 기부회원이 되신 킬린의 배재경 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빛 재단>

▶ 1,000원 문숙자(2)
▶ 2,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 3,000원 강희춘(2)
▼ 5,000원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안/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근(2) 구재순(1) 김관중(1)
김대현(2) 김동수(1) 김명문(3) 김미영(2)
김선희(1)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3)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3) 서동욱(2) 설대호(2)
엄민애(2) 엄해영(2) 오형균(2) 유경희(당산3)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화(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 10,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구(2) 구다완(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말순(3)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제천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숙자(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3)
김윤숙(2) 김윤성(1)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2) 김재환(2)
김중용/전정원(1)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식(2)
김해정(2) 김화중(2) 노현옥(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도(2) 박상우(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중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반중대(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백운재(1) 봉근재(2) 서동범(2) 서동원(2)
서미란(2) 서상웅(2) 서영란(2) 석지민(1)
석지은(2) 석창록(3)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성아(2) 신영길(2)
신인아(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3) 양일섭(2) 오상만(2)
오성곤(2) 오용석(2) 오윤서(2) 오진균(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욱(1)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용(3)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민택산업/남기백(2) 신화용(2)
 알티엑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윤지연(1) 이정숙(2) 이종우(2) 조홍준(2)
 최혜자(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헬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여재형/신지영(2) 오선환(2) 오정선(2)
 유영옥(2) 이승수(2) 이영숙(2)
 임인경/최홍식(1)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 2)

〈힐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1)
 김명석(2) 김보경(1)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옥(1)
 김창복(3) 김태윤(2) 김홍규(1)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A(1)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지민(1)
 안지우(1)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3)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 2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영숙(2) 김일생(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2) 오문영(1)
 이상희(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1) 장혜연(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태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태자(2)
 최진경(2)

▼ 50,000원

강옥순(2) 김선희(6)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 120,000원 최영숙(2)

〈한벗동지〉

▶ 1,000원 양해진(1)

▶ 2,000원 엄기호(1) 윤정화(1)

▼ 3,000원

이동현(1) 임윤정(1) 4,000원 이지현(1)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김계자(2) 김민서(2) 김봉순(1) 김승빈(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마은영(2)
 맹덕섭(2) 문수현(2) 박경민(1) 박미현(2)
 박일화(1) 박지수(2) 박창범(1)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위다연(1) 육순우(2)
 이종부(1) 이현주(1) 이해란(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승연(1)
 진주형(1) 최은미(2) 한경희(2)

▶ 6,000원 김신옥(1)

▶ 8,000원 임수덕(1)

▶ 9,000원 정주영(1)

▼ 10,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훈선(2)
 강현(2) 고유미(2) 광봉현(2) 광영현/장형기(2)
 광우경(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기래(2) 김면봉(3)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란(1)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보경(1)
 김상수(2) 김상한(2) 김선옥(2) 김선향(2)
 김세연(2) 김수진(2) 김순녀(1) 김연숙(2)
 김연주(2) 김영승(2) 김영진(2) 김예찬(1)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근(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미(1) 김정석(2)
 김정화(2) 김중국(2) 김진옥(1) 김태연(1)
 김하나(2) 김혜정(2) 김호영(2) 김홍규(1)
 남성현(2) 남진숙(2) 노선이(2)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류호승(2) 박리라(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2) 박혜진(2) 변기정(2)
 서동연(2) 서민향(2) 서선희(1)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희주(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신경기(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원현선(1) 유대호(2) 유민화(3)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2)
 이경진(2) 이상수A(1) 이상수B(2) 이성림(1)
 이소정(2) 이송순(2) 이연호(2) 이영순(2)
 이예인(2) 이예준(2) 이용식(2) 이용현(2)
 이은숙(2) 이은주(1) 이재호(2)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영(2) 이태환(2) 이해원(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영숙(2) 장철만(2) 장현주(2)
 전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희(1) 정안교(2) 정은이(2) 정재영(2)
 정진하(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차민우(1)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1)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현재준(2) 흥은정(2) 황진숙(2)

▶ 11,000원 곽가은(1)

▶ 12,000원 박원형(1)

▶ 15,000원 최정니(1)

▶ 19,000원 정의현(1)

▼ 2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권희덕(1) 김경란(2)
 김명자(2) 김미진(2) 김설화(1) 김성우(2)
 김여은(2) 김희량(2) 박승환(2) 백진선(2)
 만물마트(1) 송선미(2) 우영옥(2) 원석범(3)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은지(1)
 이정미(1)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조기택(2)
 정현주(2) 채순옥(2) 하복덕(2) 한재형(2)
 한초덕(2) 한혜림(2) 함중수/한정옥(2)
 황민규(1)

▶ 24,000원 심보연(1)

▶ 25,000원 우현하(1)

▼ 30,000원

강동룡(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2) 서민행(2) 성낙일(2) 오범균(2)
 윤일심(2) 이웅기(3) 임재창(2) 정숙용(1)
 정은영(2) 조길용(2) 조병훈(2) 채한석(2)
 최갑석(2) 함미용(2) 황정현(2)

▶ 40,000원 백승열(2)

▼ 50,000원

곽형우(2) 김간란(2) 김종호(2) 김한서(2)
 서명학(1) 심재협(1) 윤미선(2) 이태균(2)
 조함미(2) 최갑석(1) 피노키오(1) 홍영미(2)

▶ 58,000원 백승윤(1)

▶ 60,000원 정은숙(2)

▶ 62,000원 최하윤(1)

▶ 63,000원 한상순(1)

▶ 65,000원 김상아(1)

▶ 70,000원 박성준(1) 장은정(1) 정영진(1)

▶ 80,000원 김성길(1)

▼ 100,000원

권영민(1) 권영수(2) 김간란(2) 김장옥(2)
 박상봉(1) 박장훈(1) 유정자(2) 이익진(1)
 주지연(2) 황인영(1)

▶ 105,000원 조성윤(1)

▶ 120,000원 김석겸(1) 열림교회(1)

▶ 140,000원 김진수(1)

▶ 160,000원 박희수(1)

▶ 200,000원 서부지방경찰청(1) 하대주(2)

▶ 216,200원 김병준(1)

▶ 300,000원 김병준(1)

▶ 500,000원 정의승(1)

▶ 631,000원 서강어린이집(1)

<한벗등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 5,000원 박현민(2)
- ▼ 10,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 50,000원 김혜원(2)
- ▶ 70,000원 최수진(2)
- ▼ 10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각별한 뜻으로
보내주신 기부금
옷깃을 여미고
받았습니다.
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통권 300호

퍼낸날 : 2024년 1월 10일
퍼낸이 : 한벗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장우형(부이사장),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영,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벗,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번호

한벗등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축복지관 : 02)381-8938
한국휠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5,000원 김운수(2)
- ▼ 10,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3)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한정환(박종미)(3)
- ▶ 15,000원 김민정(2)
- ▼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2) 신호숙(2) 엄해경/김근일(2)
-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 ▼ 50,000원
신현관(2) 심진섭(2) 장안태(2) 홍지웅(2)
- ▶ 100,000원 김현진(1)

<미안마어린이합창단>

- ▶ 10,000원 이성순(1)

<최준수 목사 기금>

- ▶ 6000원 최영
- ▶ 30,000원 김진현
- ▶ 83,333원 한벗재단
- ▶ 200,000원 구자명, 조정복

재정보고 (23.10월~23.11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부금	정기기부(재단)	14,171,000	인건비	급여 및 사회보험	13,083,078
	특별기부금	1,630,000	시설지원	등지, 주간보호, 지축	13,485,000
	미국교민기부금	2,501,000	상환금	원금, 이자	1,574,061
	동지/주간	6,685,000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5,362,666
	날개달기	4,480,000	업무비	접대비 등	1,717,234
	방정환기금	1,646,000	간행비	소식지, 우송비	1,431,700
	미안마합창단기금	20,000	공과금	보험료등	383,130
	최준수 목사 기금	519,333	사업비	휠체어날개달기	3,540,000
임대수입	중계기, 관리비 등	9,413,937		방정환기금	3,304,000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14,914,110		장애인 피부미용	72,850
사업수입	휠체어 보증금 등	2,785,000		게스트룸	152,790
기타	잡수입	89,800		외상장애인 여행	13,297,940
			기타 사업지원	1,123,482	
			잡지출	12,073	
총 계	58,855,180	총 계	58,540,004		
		잔 액	315,176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사항입니다.

소금이 세상 사는 법

김동규

태양과 바람의 힘을 빌려
바다는
들려주고 푼 이야기들을
소금으로 내어놓는다

소금이 세상을 사는 법은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버리고
그대에게 스며들어
그대와 함께 머무는 것

주어도 준 것 같지 않은 부피로
그대와 함께할 때
밍밍한 세상은 맛깔나는 세상이 된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걸린 시)



꽃감의 여행



연세대학 부총장인 S 교수님은 12월 하순 선물상자 하나를 받았다. 뽕안 당분이 우러난 고운 꽃감이었다. 집에 가져가 식구끼리 먹기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자신이 돕는 한 봉사단체에 전하기로 했다. 그곳 직원들은 연말이 되어도 선물 하나 못 받을 것이다. 퇴근길에 들려 꽃감 상자를 내려놓았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고향 내려가는 직원이 있으면 주세요.” 마침 연말 연휴에 고향인 전라도 화순으로 내려가는 직원에게 전해졌다. 5형제 장남인 그는 고향에 갈 때마다 마음이 늘 무겁다. 부모님께 그럴듯한 선물을 마련하지 못 하는 때문이었다. 장남이 되어 가지고- 벌써 일흔네 살이나 되신 어머니님 앞에 꽃감 상자를 내려놓았다. 노모는 상자를 열어보더니만 다시 보자기를 여민 후 다락에 올려놓았다. 연휴 마지막 날, 어머니는 강원도 양구에서 내려온 막내아들에게 꽃감 상자를 내밀었다. “강원도는 꽃감이 귀할 것이다. 장모님이 잡수시라고 해라.” 막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참이었다. 양구로 돌아간 막내며느리가 친정어머님께 꽃감 선물을 드렸다.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전라도는 꽃감이 이렇게 곱구나!” 라며 좋아하시더니 상자를 열어보기만 하고 손도 대지 않으신다. 이후 꽃감 한 줄은 한 달에 걸쳐 여섯 살, 아홉 살 손자들 차지가 되었다. 나머지는 이듬해까지 한 번 더 겨울을 지난 후, 색깔 좋은 수정과가 되어 설 제사상에 올랐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 달달하게 익은 시원한 수정과 한 사발이 이웃집, 혼자 사는 할아버님 방바닥에 놓였다.

서울에서 전라도로 갔다가 다시 강원도 양구까지, 꽃감의 즐거운 여행이었다.

